

“광양만권 산단 주변 환경오염 영향조사해야”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 주장 환경정책 기본 조례 개정 추진도

광양만권 산단 주변의 대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 영향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공동대응)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는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공동대응은 “정부와 국회는 광양만권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광양시의회는 광양시가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책무를 강화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4월 22~28일 광양과 순천, 여수, 남해, 하동, 고성 주민들이 14곳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4월 25일과 27~28일, 남해와 여수 모도, 하동, 고성 등 특정 지점은 도시 대기 측정소 결과보다 다소 높게 측정됐다.

다른 지역은 2019년 5월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농도가 낮게 측정됐다.

시민공동대응은 올해 4월 강우량이 2019년 5월에 비해 많아 농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공동대응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조사는 제철소와 광양만권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영향 등 정밀한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의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생활공간에서 대기질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 활동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이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영향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화적 가치 높은 곡성 지난해 문화경관조성 이어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곡성군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2년 연속 뽑혔다.

곡성군은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최하는 '2021년도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지역성을 살린 특색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해 인정을 받았다.

일상적 생활 공간에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추진한 '곡성읍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또 구도심의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중앙로 리브 프로젝트'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면 단위 최초로 선정된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간주도 체험상품 개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수직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은 지난해에도 문화경관 조성과 시설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시 폭염피해 저감시설 운영

무더위쉼터·폭염 행동요령 홍보

순천시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순천 지역은 장마가 끝나고 9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13일부터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무더위쉼터 등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영농작업장과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예찰 활동에 들어갔다.

각급 병원과 보건소와 연계해 온열질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540개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

해 수시로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재난 도우미들은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 그늘막 57곳, 인공간파 분사 시설(쿨링포그) 5곳을 운영하고 살수차를 운행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715곳을 운영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3만5000매를 배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운영하는 폭염대응 살수차.

순천 전 도서관서 여순사건 정보서비스

19일부터 관련 도서·영상 비치

순천시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19일부터 순천시 도서관 전체에서 여순사건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순천시립 연향도서관 1곳에 여순사건 특별 코너를 마련해 사진과 관련 도서, 영상 등을 비치·운영해 왔다. 오는 19일부터는 순천시립도서관 8곳과 작은 도서관 89곳으로 전시를 확대한다.

이 곳에 여순사건 관련 도서와 함께 Q&A, 영상, 도록, 음반, 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쉽게 여순사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시민들은 관련 단체와 연결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시 도서관 관계자는 “여순사건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여순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동안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뼈아픈 73년의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연향도서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한번에’

시홈페이지 파일첨부 기능 추가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추진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업무가 시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면서 더욱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지난 8일부터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4월부터 가맹점 등록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개별 송부하도록 불편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사항을 입력 후, 구비서류 파일첨부,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맹점 요건 충족 시 승인 후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송한다.

여수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여수사랑상품권 판매와 가맹점 환전대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6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가맹점 수를 6400여 개로 늘렸다.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앱’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강화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평소 상품권 액면가의 6% 및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 환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